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독서 문화 운동

–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박미라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공동대표, 모퉁이어린이도서관장

사회적으로 책읽기가 암울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수능, 독서지도 매뉴얼 등 독서를 위한 부모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지만, 이러한 강요는 책읽기가 전부인 듯 착각하게 만들게 된다. 책읽기라는 그 결과만이 중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독서는 개인의 개인적 대화이기 때문에 결코 강요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서를 위한 환경 조성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독서 환경은 어떠한가?

첫째,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하다. 도서관 1관당 인구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92,000명으로 노르웨이 4,506명에 비해 13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까운 일본 47,565에 비해 서도 두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어린이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른보다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전체적인 도서관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이 책읽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없다. 어린이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능동적으로 책읽기에 참여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도서관 운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어른들은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환경과 역할에 대해 익숙치가 않다.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는 어린이 도서관의 발전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시설, 서적, 운영 관리에 있어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제도적, 환경적 지지가 미비하여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민간어린이도서관은 결코 외부의 지원 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독서운동의 의의 책으로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대하여

안찬수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 발전의 비전과 책 읽는 문화

'창조성' 이 강조되는 '창조도시'라는 대전의 비전은 결국 '책 읽는 도시'라는 비전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비전의 연결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시민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행정"이다.

역동적인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과 상상력

관이 시민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펴야 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도 많다. 흔히 말하듯 뉴욕이 오늘날 문화예술의 수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비록 한 국가의 수도는 아니지만 역동적인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였던 시민의 열망과 상상력, 그리고 지적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독서진흥 및 독서운동의 방향

도서관 확충이나 도서관 콘텐츠 확충 등과 같은 과제의 해결, 지역의 독서장애인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의 확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계획과 그 시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운동의 패러다임 문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질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나 독서운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공공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그것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키우고 성찰과 비판의 역량을 배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사회적 행위로서의 독서 - 민주시민으로서의 책 읽기와 희망의 인문학

정보·지식·즐거움·마음의 양식, 이 네 가지는 한 개인이 책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일 터입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다면, 우리 사회의 현 단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읽기를 통한 민주시민 되기, 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책읽기를 통하여, 반성하는 주체, 성찰하는 주체, 비판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 읽는 도시의 도서관문화

끝으로, '책으로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광역시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도서관정책과 새로운 도서관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가 법에 의거하여 2008년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놓을 것일 터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문화·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건립비를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총예산의 1%를 확보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건립비를 포함한다면 총예산의 2% 수준으로) 것이다.

독서공간·독서운동으로서 서점의 역할

이동선 / 계룡문고 대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서점의 적극적 행위 즉 독서행위와 독서동기 유발의 적극적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점의 적극적 행위는 독서운동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효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교육문제 까지도 해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풍부한 독서만이 충실한 실력자를 만들어 현 입시교육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교육 열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아래는 지금까지 실시한 서점의 적극적 행위 사례를 나열하였다.

1. 서점은 서점공간 그 자체로서 독서동기부여
 - 공간 자체가 이미 동기부여를 함 : 편의 시설도 함께 갖추
 - 인기 작가나 전문강사초청으로 독서동기 부여 : 50여 차례 진행함
2. 서점견학(나들이)의 독서동기(교육적) 효과 : 유치원·초등생을 중심으로
 - 학교(유치원)나 학급단위 행사로 독서동기 부여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냄
3. 교육현장(학교-초·중등학교)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행사
 - 국내 최고 동화·청소년작가초청 각 학교에서 대화 및 사인회로 독서동기부여함
4. 독서환경만들기의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아파트 단지내, 교회 등 10여개 만듬
5. 유비쿼터스 그림책 운동 -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생활독서 -
 - 고객이 머무르는 곳에 그림책으로 독서 환경을 조성해 생활속에 독서를 껴함
6. 사회복지 또는 국가시설의 독서운동
 - 사회복지시설 : 독서는 지적능력을 키워 자립의 힘을 기름
 - 군대의 병영도서관 : 독서만이 불리한 시간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 교도소(유치장 등)에 독서환경조성 : 자기계발로 재범 방지 효과
7. 대대적인 책문화 행사 또는 지원 : 책읽어주는엄마 단체와 5차례 진행
8. 가정도서실(거실을 서재로, 가정문고)운동
 - 요즘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널리 홍보하고 있었음
 - 가정서재(가정문고)를 이웃에 개방으로 까지 승화(일본이 독서선진국이 된 근원)
9. 신혼부부교육강좌 실시(유아와 초등생 부모까지 확대)

- 자녀교육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준비된 부모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바람직하게 자녀교육 가능

돌아본 책읽기 / 운동

손병우 / 충남대학교 인문정보학과 교수



우리는 최근 독서량이 주는 것을 영상매체, 즉 최신 매체의 급격한 발달에 그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영상매체는 시대의 발달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 중 일부는 독서를 이야기 합니다. 독서가 줄어드는 것은 영상매체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대화 즉 성찰 이라는 근본적인 독서의 속성이 무너진 탓입니다.

독서의 주라 할 수 있는 글자는 말이라는 우리의 소통 수단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며, 이미지를 보지 않은 채 사유 속에 그려 넣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문자는 종종 지배 계급의 통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자에는 이데올로기가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자체가 가지는 성찰, 반성이라는 속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서와 그 독서의 문자, 이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며, 말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기

에 어떤 문자와 언어가 시대의 주를 이루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는 새롭게 문자 대화, 채팅, 메신저 등 다양한 문자 소통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독서의 근본적 속성을 잊지 않은 채 이 부분을 심분 활용한다면 책읽기의 새로운 발전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의 책읽기 운동

- 지역주민과 함께 책으로 만나는 다양한 독서활동 -

오희숙 / 한밭도서관



우리시에는 중구 3개관, 동구3개관(2개분관), 서구 3개관, 대덕구 2개관, 유성구 2개관(1개분관)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 지역의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민 책읽기의 생활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독서 커뮤니티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펼쳐지는 책 축제는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독서관련 단체와 협력체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책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의 장이 만들어 진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역 독서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하면

첫째, 지역주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련 주민들을 끌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를 시키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관련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면 비용면이나 인력면에서도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책읽기 위한 안내자가 되어 주기 : 도서관에서는 책읽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층별로 책읽기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시작한 책읽기가 평생 지속되도록 연계시키는 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어린시절에 잠깐, 학생일때는 학습을 위해서 잠깐, 성인이 되어서는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책읽기를 세대가 함께 이어나가 세상과 소통하고 책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공공도서관의 특성중에 하나가 모든계층을 서

비스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배움과 가진 것,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수의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그들이 책이라는 좋은 스승을 통해 균등한 기회 속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책읽기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몇가지 방안은 도서관의 커다란 틀의 정책은 아니다. 도서관에서 매일 매일 수많은 시민들을 접하는 현장 근무자로서의 바람이다. 지금까지 각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책읽기 위한 서비스를 하여왔고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것이다.

대전시 독서 환경과 운동 현황 조사

신현숙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

본 조사의 목적은 <희망의 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전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운동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민·관에서 추진 해온 독서 운동 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독서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대전시에서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을 인터뷰하고 자료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전시 독서 환경

첫째, 대전의 공공 도서관 1관 당 인구는 82,000명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서 직 배치율도 평균 26%로 낮은 편 이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둘째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66%로 초·중·고 286개교 중 1/3인 98개교에는 현재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규직 사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18개에 불과하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학교 도서관의 환경 역시 많이 부족하다.

셋째 주민이 걸어가서 이용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마을문고, 아파트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공 도서관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정도와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으로 부터 교육과 지원(독서 프로그램과 도서관 운영 방법 등)이 절실하다.

2. 대전시 독서 운동 현황

첫째, 사서 직원의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러 연령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의욕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교육청과 시민 단체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교육청에서는 주로 독서 골든벨과 독해력 경진 대회, 독서 인증제 등 시험과 경쟁을 통해서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독서 관련 시민 단체에서는 책 읽어주기, 도서 축제 등 책과 친해지는 활동과 도서관 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독서 운동 대상을 고려할 때 어린이는 주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독서 운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일본 독서 운동의 사례

– 시가현과 히코네시에서의 독서 활동에 대하여 –

김필동 /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지역 도서관의 활동【시가현】

1) 계획의 기본 목표

“모든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독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2) 기본 방침

- ① 어린이가 독서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제 조건의 정비·충실
- ② 가정·지역·학교를 통한 사회전체적인 활동(참여)의 추진

- ③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보급
- 3) 목표와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
 - ①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
 - ② 아동관·공민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
 - ③ 문고활동이나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

【히코네시】

히코네시의 그림책 읽어주기 자원봉사활동 단체로는 「히코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임」과 「히코네 아동도서 연구그룹」이 있다. 「히코네 아동도서 연구그룹」은 2004년도(제34회)에 지역이나 직장 등에서 독서 보급에 진력하며 독서추진운동에 공헌한 단체·개인을 표창하는 「노마(野間) 독서추진상」을 수상했다.

직장에서의 독서 활동

【히코네시 직원상조회의 활동】

일본의 많은 직장에서는 직원이 「상조회(互助會)」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임) 이것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복리후생사업(강연회, 이벤트, 학습에 관한 활동)이나 급부(給付)사업(관혼상제 등의 축의금·조위금, 질병·재해 등의 위로금 등을

냄)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모임은 독서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히코네시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독서활동은 일본 전국에 무척 많이 있다고 한다. 또 히코네의 단체 활동이 표창을 받은 것은 선진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평범한 활동이지만 오래 계속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 사람들의 독서, 공부 활동은 매우 폭넓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공민관 활동을 관찰하고, 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학습을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보았다.

최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작은도서관 운동」에 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저는 대전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오늘 모임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독서 활동·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